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배포 일시 | 2023. 1. 11.(수) | | |
| 담당 부서 |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| 책임자 | 단 장 이경석 (044-201-4166) 과 장 안재혁 (044-201-3964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권성근 (044-201-4162) 사무관 백정호 (044-201-3983) |
| |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이창석 (02-2133-221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유형석 (02-2133-2262) |
| | 인천광역시 철도과 | 책임자 | 과 장 함동근 (032-440-5683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남상용 (032-440-391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김종진 (032-440-3891) |
| | 경기도 철도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박재영 (031-8030-481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고태호 (031-8030-4821) |
| | 보도일시 | 2023년 1월 1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1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 | |

'24년 GTX 개통 위해 국토부·지자체 힘 합친다

- 서울·인천·경기와 1차 「GTX 협의회」 개최 2차관 주재로 주요 현안 논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GTX-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서울시·인천시·경기도 등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 「국토부·지자체 GTX 협의회」(이하 협의회)를 구성·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※ (時/所/參) '23.12(목) 1530' 철도공단 수도권본부/ 국토부 제2차관 서울 인천 경기 담당국장

- 협의회는 “'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(1.3)”의 후속 조치로,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,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.

【 GTX 주요 업무 보고내용 】

-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GTX 기존 사업 (A·B·C 등) 적기 개통·착공 추진
 - * A노선: 재정구간 종합시험운행 착수 및 민자구간 터널굴착 완료(23.下)
 - B노선: 재정구간 설계 착수(23.1) 및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(23.1)
 - C노선: 민자적격성 검토 완료(23.2) 및 실시협약 체결·착공(23.下)
- GTX 연장·신규사업은 기획연구를 통해 최적노선(안)을 도출하고, 노선별 추진 방안을 마련(23.6)하여 임기 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추진

-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,
 - 특히, 1월 12일 열리는 첫 번째 회의는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이 직접 주재하여 GTX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.
 -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분기별 주요 과제들도 관련 지자체와 긴급히 점검하고 논의한다.
-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“내년 GTX-A 수서~동탄 구간 우선 개통, B노선 착공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, 무엇보다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”고 하면서,
 - “그간 국토부 혼자 풀기 어려웠던 GTX 현안 과제들을 서울시·인천시·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논의하면,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”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.